

재해재난에 안전한 무주 만든다 “진안군 미래 함께 고민해주길”

유호연 부군수 단장으로 점검단 구성... 해빙기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 안전점검

무주군은 22일 재해위험지역을 점검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호연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로 점검단을 구성한 무주군은 오는 4월 15일까지 관내 재난취약지역과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무주읍 읍내3지구와 설천면 나립지구, 적상면 사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및 균열 여부 등 위해요소가 발생했는지 살폈다.



무주군은 22일 무주읍 읍내3지구와 설천면 나립지구, 적상면 사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해위험지역을 점검했다.

또 △비탈면 상태와 뜬 돌 등 낙석 발생 여부와 △시설물 균열 여부, △배수시설 기능 유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이외에도 대형 건설현장인 무주읍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시 하천시설과 주변 농경지 및 주택 등지에 발생할 수 있는 침수피해 우려 사항을 점검했다.

유호연 부군수는 “재난은 철저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해빙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공사장 주변과 절개지, 옹벽 등 재해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재난에 안전한 무주, 사회재난에 안심하는 생활, 재난피해에 안도하는 군민을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3월 청원초회 가졌다

진안군은 22일 군청 강당에서 3월 청원초회를 가졌다. 김종필 진안부군수는 청원초회에서 “5년 만의 도 종합감사 수감, 운장산 고로쇠 축제, 4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배부, 산불 예방 등 전 직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고맙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각종 보조사업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에 신경써주길” 주문했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 등 진안군이 당면한 위기를 인식하고, 앞으로의 진안군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진안군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추진 등에 모든 부서가 합심해 노



력해 주길” 당부했다.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더 뒤돌아보며, 지역주민을 위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을 펼칠 것”에 대해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친절교육에서는 “고객 만족에서 감동으로 라는 주제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객응대, 전화 예절, 상황에 따른 매너 및 조직 내 대인관계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 전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세모네모작은도서관에서 책 여행 떠나요”

진안군, 만여권 책 보유·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 진행

진안군 진안읍 주공2차 아파트에 위치한 세모네모작은도서관이 책 여행을 떠날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 세모네모작은도서관은 진안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축해 노계3동 작은도서관을 이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상 2층 규모로 만여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디움 10좌석을 포함해 총 30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내부 공간 구성은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뒀 1층은 사무실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서가 및 빌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영화 상영 및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동아리방, 커피와 간단한 차를 마

실 수 있는 북카페와 같은 느낌의 주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다양한 만화책이 구비돼 있으며, 2층에는 개별적으로 공부 가능한 10개의 열람실과 개방형으로 단체 미팅이나 스터디를 할 수 있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참이 많은 구조의 건물로써 창가 전망형 열람실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독서와 학습에 지친 이용자에게 참된 너머로 시원한 마이산을 감상하며 눈의 피로를 풀 수 있게 했다. 또한 다양한 독서문화 및 지역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서동아리

를 비롯한 여러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4월부터 상시 진행될 예정이며, 학기 중에 바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방학에 맞춰 프로그램 진행 및 청소년 관련 교과연계 도서, 추천도서, 필독서 등의 주제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100인 책 읽기 독후활동, 서평 남기기, 독서동아리 육성 등 독서 관련 전문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해 책 읽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관이다. 도서 대출은 진안군 작은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 10권까지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진단기관 확대

무주군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의료비를 연중 지원과 함께 진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진단기관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주지역 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무주군보건소의료원은 올해부터 기존 피부과와 소아청소년과 한방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할 수 있는 의사와 한의사가 근무하는 모든 의료기관까지 확대 진료에 나서고 있다. 소득기준 중위 100%(4인 기준 월 소득 540만1천 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가 대상이며, 연간 1인

당 50만 원 이내(최대 5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 아토피 피부염 진단 등록자료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일 이후부터 발생한 의료기관 처방전 또는 항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무주군보건소의료원에 신청서와 함께 청구하면 환자 계좌에 지원금이 송금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먹거리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진안군은 22일 김종필 진안부군수, 진안군의회 김명갑 산업건설위원장 등 먹거리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먹거리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먹거리위원회(위원장 김종필 진안부군수)는 올해 초 진안군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첫 번째 정기회의로서 민간 위촉직 위원 중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구성 및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 진안군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급년도 먹거리 정책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따라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순으로 진행됐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연초 진안군 먹거리 비전 선포식과 함께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 위촉식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먹거리위원들은 2025년 1월까지 2년간 먹거리 관련 각종 정책과 예산편성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각 분과별 활동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날 먹거리위원회는 진안군 푸드플랜 종합계획의 핵심비전인 ‘건강한 군민, 지속가능한 농업, 농·도 순환도시 진안 실현’과 4개 핵심전략 △군민 누구나 건강·안전한 먹거리보장 △지속가능한 생산·공급기반 구축 △통합적 운영관리체계기반 구축 △지역협력 거버넌스활성화와 16개 실행과제 추진을 통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세계 물의 날 맞아 환경정화활동 펼쳐

장수군은 22일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자연보호중앙연맹 장수군협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곳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세계 물의 날’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수질오염 방지 및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날로, 1992년 제47차 UN총회에서 ‘Agenda 21’에 포함된 건의를 받아들여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100여 명과 지역

보호중앙연맹 장수군협의회 회원 및 인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장수천(교촌교~장수교) 일대와 장수읍 시가지 주요 도로변의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세계 물의 날을 홍보했다. 최훈식 군수는 “물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군민들이 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겨 깨끗한 물, 청정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축산농가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 낙농농가 대상으로 착유시설 세척제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낙농농가의 경영안정과 및 소득증대,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8백만 원을 들여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낙농가 고통화에 따른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기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낙농농가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서다. 현재 무주군의 젖소 사육 규모는 5농가에 423두에 이르며, 이는 도내의 1.3%, 전국대비 0.1%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역 내 낙농 사업의 경우 꾸준한 지원을 통해 육성·발전시켜야 할 중요산업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원식 과장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유 생산과 지속 가능한 낙농업 기반 구축을 통해 무주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장수사랑음 인구유치 민관공동대응 협약

최훈식 군수는 지난 21일 군청회의실에서 장수군 23개 기관·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장수사랑음 인구유치 민관공동대응 협약’을 실시했다. 협약식은 국가적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지역 간 인구불균형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 심화로 유관기관 간 인구위기 인식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이 협력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방소멸대응 및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은 장수군뿐만 아니라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동참과 홍보를 부탁드리고, 장수군에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